

# 국 외 재 정 연 수 보 고

## (호 주 / 뉴질랜드)

2017.3



**대구광역시**  
DAEGU METROPOLITAN CITY  
(예산담당관실)

# 목 차

---

1. 연수 개요 / 2
  2. 국외연수자 명단 / 3
  3. 주요 견학 일정 및 방문기관 장소 / 4
  4. 기관공식 방문 및 일정 / 6
  5. 오스트레일리아(호주) 개관 / 7
  6. 뉴질랜드 개관 / 11
  7. 기관공식방문 및 연수 내용 / 14
  8. 주요 기관 방문 및 연수내용 / 24
  9. 기타 방문지 및 연수관련 사진 / 30
  10. 첨부자료 / 35
-

# 국 외 재 정 연 수 보 고

## (호 주 / 뉴 질 랜 드)

### 1 국외연수 개요

#### □ 연수목적

- 선진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운영 상황을 이해하고 우리시 예산 운영의 효율성 및 적정성 제고
- 시와 구·군 및 공기업이 합동으로 연수팀(2개조 - 재정분야, 도시계획분야)을 운영함으로써 선진 외국 재정운영에 대한 연구 기회 확대와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현장체험 연수 실행
- 선진행정 문화 및 재정운영 기술 터득을 통하여 국제화 마인드를 함양, 연수 후 토론회 개최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는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

#### □ 연수동기 및 배경

-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와 책임성 확보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호주, 뉴질랜드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연수를 통해 우리시의 재정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기 간 : 17. 3.2.(금) ~ 3.11.(토) /8박 10일

□ 대상국가 : 호주, 뉴질랜드

## 2

## 국외연수자 명단

소 속		성 명			비 고
계		21명 (남 14명, 여 7명)			
1	예산담당관실	예산총괄팀장	김 인 환	KIM IN HWAN	1조
2	예산담당관실	행정 6 급	임 용 하	LIM YONG HA	
3	경제정책과	행정 7 급	우 영 규	WOO OUNG KYU	
4	서울본부	행정 6 급	홍 석 희	HONG SEOK HEE	
5	대구시설공단	경영지원처장	한 승 호	HAN SEUNG HO	
6	도시철도공사	차 장	이 규 철	LEE GYU CHEOL	
7	시 의 회	운영팀장	박 학 재	PARK HAG JAE	
8	시 의 회	행정 6 급	류 은 주	RYU EUN JU	
9	동 구	예산팀장	성 기 삼	SEONG GI SAM	
10	서 구	예산팀장	최 태 식	CHOI TAE SIK	
11	남 구	세 무 7 급	김 민 주	KIM MIN JU	
12	대구환경공단	경영기획파트장	류 호 인	RYU HO IN	2조
13	대구도시공사	과 장	서 지 현	SEO JI HYUN	
14	예산담당관실	행정 6 급	이 영 기	LEE YOUNGKI	
15	의료산업과	행정 6 급	이 윤 정	LEE YOON JUNG	
16	교통정책과	행정 7 급	홍 연 주	HONG YEON JU	
17	시 의 회	행정 7 급	김 현 희	KIM HYEON HUI	
18	북 구	예산팀장	조 연 재	JO YOUN JAE	
19	수 성 구	행정 7 급	김 은 경	KIM EUN KYUNG	
20	달 서 구	행정 7 급	이 응 칠	LEE EUNG CHIL	
21	달 성 군	행정 8 급	문 병 호	MOON BYUNG HO	

일 자	지 역	견학 및 방문장소
제1일 3/02 목	인천	18:45 인천공항 출발
제2일 3/03 금	시드니 블루마운틴	06:45 시드니공항 도착 유네스코지정 자연유산인 <b>블루마운틴 국립공원</b> ▶ <b>블루 마운틴</b> 푸른 빛을 띄며 웅장한 풍채를 자랑하는 산으로 산악철도와 케이블카를 자연자원과 연계 관광자원화한 현장 탐방 - 과거 석탄레일을 개조한 <b>궤도열차 탑승</b> 및 태양광 재활용 쓰레기통 견학 - 거대한 자연 숲 속 산책길을 <b>삼림욕</b> 및 자연경관 유지를 위한 노력에대한 청취
제3일 3/04 토	시드니 캔버라	▶시드니 복귀 호주의 수도 캔버라 방문 ▶ <b>국회의사당 견학</b> - 호주의 모든 행정과 정치의 중심지 ▶ <b>대사관 마을</b> - 77개의 대사관을 비롯하여 160여 개국의 건물들이 모여 있는 지역 탐방 - 각국의특징이 반영된 독특한 건물 및 한국 대사관 견학 ▶ <b>전쟁박물관</b> - 한국전쟁 참전관 관람을 통한 호주와 한국과의 관계 확인 시드니 ▶시드니 복귀
제 4 일 3/5일 (일)	시드니  울릉공  시드니	시드니와 인근 울릉공 ▶ <b>바이센테니얼공원(Bicentennial Park)</b> - 호주 올림픽을 기념하여 만들어진 올림픽 공원과 연계된 공원 ▶ <b>스텐웰파크(Stanwell Park)관광, 볼드힐(Bald Hill)</b> - 1870년 세워진 세계에서 2번째로 오래된 국립공원 ▶ <b>울릉공(Wollngong), 플래그스태프힐의 등대</b> - 호주 원주민어로 모래에 밀려오는 파도소리라는 뜻의 인기지역 탐방 ▶ <b>시드니 동부지역</b> - <b>더들리페이지</b> 시드니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는 <b>뷰포인트</b> 시드니 조망 - <b>갭파크(Gap Park)</b> 시드니 항만의 자연 방파제 관람 및 주변 경관 관람  ▶ <b>시드니 시청 방문</b> - 오스트레일리아와 오세아니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로서 도시권의 인구가 약 475만명이다. 시드니는 뉴사우스웨일스 주의 행정도시
제 5 일 3/6일 (월)	시드니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및 한국관광공사 시드니 지사 공식 방문 ▶ <b>오페라하우스 방문 견학</b> 호주의 상징이며 세계적인 건축물과 내부시설 견학 ▶ <b>하버브릿지</b> 아치교로선 세계 두번째로 긴 다리 방문  ▶ <b>Korea Tourism Organisation</b> <b>(한국관광공사시드니 지사)</b> - 지방재정 운용현황 및 지방공기업 운용 실태, 관광진흥 현황 등 벤치마킹

일 자	지 역	견학 및 방문장소
제 6 일 3/7일 (화)	골드코스트  브리즈베인	골드코스트 및 브리즈베인 ▶Q1 전망대 : 퀸즈랜드 최고층 빌딩, 세계2번째 높은 아파트 - 세계적인 골드코스트 해변 및 주위 경관을 조망하는 최적의 전망대 견학 ▶Southbank beach(해변 & 공원) 견학 - 공원녹지시설 우수사례 - - 사우스뱅크 비치 브리즈베인 남단에 위치한 브리즈베인 강을 따라 조성된 도심 공원지대로 시민들이 휴식과 문화체험을 한번에 할수 있는 곳 견학 ▶마운틴쿠사 전망대 브리즈베인시내를 한눈에 볼수있는 지역으로 공원 산책시설 견학 ▶브리즈베인 시청 방문 : 퀸즈랜드 주도
제 7 일 3/8일 (수)	브리즈베인 오클랜드 해밀턴	6:10 브리즈베인 공항 출발 12:25 뉴질랜드 오클랜드공항 도착 17:00 해밀턴 도착
제 8 일 3/9일 (목)	와이토모  로토루아	와이토모 동굴 및 로토루아(온천과 유황의 도시) (로토루아 : 두 번째 호수라는 원주민 전통언어) ▶와이토모 동굴 : 반딧불 및 종유석 등 천연자원을 관광자원화한 현장 견학 - 약 3천 만년전 형성된 석회암 동굴, 천장을 뒤덮은 수많은 반딧불 등 현장 확인 - 지하 강물을 따라 보트를 타고 이동하며 반딧불을 관측하는 체험 실시 ▶스카이라인 곤돌라 탑승 체험 : 자연환경 관광자원 활용현황 확인 - 로토루아 전경을 볼수 있는 산정상(해발900m)에 식당과 전망대설치 ▶아그로돔 (뉴질랜드 전통농장) 견학 - 양털깎기 쇼 실내 공연 체험, 새끼양 젖 먹이기기 관람 - 야외 목장에서 양몰이 개 시범 관람 ▶와카레와레와 지열지대 : 지열지대 자연환경을 활용 관광자원화한 현장 확인 - 진흙이 물처럼 끓고 있는 간헐천, 진흙열탕 관람 ▶Rotorua Lakes Council (로토루아 시의회) 견학 - 뉴질랜드 북섬에 있는 도시로 인구 68천명이며, 관광중심 도시
제 9 일 3/10일 (금)	로토루아  오클랜드	로토루아 레드우드 수목원 및 오클랜드 더 클라우드 방문 ▶레드우드 수목원 - 세콰이어 나무들로 가득한 울창하고 뾰족한 수목원 탐방 ▶오클랜드 - 뉴질랜드 최대의도시로 상업과 문화의 중심 도시 방문 ▶The Cloud (오클랜드 컨벤션 센터) - 오클랜드 시민의 편안한 휴식처겸 컨벤션 행사장 방문 운영관련 견학 ▶ 오클랜드 시의 명소 윈터가든(식물원) 및 미션베이(시민휴식공간) 방문 견학
제10일 3/11일 (토)	오클랜드  인천	10 : 45 오클랜드 출발  19 : 55 인천공항 도착

## □ 한국관광공사 시드니지사 방문 - 3.6(월) 15:00~17:00

시간계획		주요 내용	비고
15:00		한국관광공사 시드니지사	
15:00~15:10	10'	청사 라운딩, 인사	
15:10~16:00	50'	호주 관광 운영실태 및 관광진흥현황 등 설명	정지만 차장
16:00~16:40	40'	인터뷰(질의 및 답변)	
16:40~16:50	10'	기념품 전달(연수단장)	1종
16:50~17:00	10'	기념촬영, 감사인사, 이동	

## □ 오클랜드 더 클라우드 방문 - 3.10(금) 14:00~16:00

시간계획		주요 내용	비고
14:00		오클랜드 더 클라우드	
14:00~14:10	10'	청사 라운딩, 인사	
14:10~15:00	50'	더 클라우드 운영실태 설명	캐시 챔버스 (선임)
15:00~15:40	40'	인터뷰(질의 및 답변)	
15:40~15:50	10'	기념품 전달(연수단장)	1종
15:50~16:00	10'	기념촬영, 감사인사, 이동	

## □ 호주 국가 안내



- 국 명 : 호주 (Australia)
- 수 도 : 캔버라(Canberra, 31만명)
- 면 적 : 약 774만km<sup>2</sup> (한반도의 약 35배)
- 인 구 : 약 2,275만명(세계 55위)
- 행정구역 : 6개주, 2개 준주, 650여 지방정부
- 민 족 : 영국계(77%), 기타 유럽 및 아시아계(21%), 원주민(2.0%)
- 언 어 : 영어
- 종 교 : 기독교(성공회 24%, 천주교 26%, 감리교 2.6%, 연합회 7.6%, 장로교 3.6%, 회림정교 2.9%등)
- 시 차 : 시드니 - 한국보다 2시간 빠르다  
브리스베인/골드코스트 - 한국보다 1시간 빠르다
- 통 화 : 호주 달러를 사용하며, A\$로 쓴다.  
지폐는 \$100, \$50, \$20, \$10, \$5의 5종가 있으며,  
주화로는 \$2, \$1, 50¢, 20¢, 10¢, 5¢, 1¢가 있다.





## □ 역사

- 1600년대 초 :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인 호주대륙 존재인지
- 1788년 : ARTHUR PHILLIP 선장 인솔 하에 영국인 시드니 이주
- 1823년 : 메리노양 도입으로 목축업발달, 호주의 경제적 가치 인정, 유배지에서 식민지로 전환(6개 식민지)
- 1851년 : NSW 금 발견, 골드 러쉬로 이민 급격증가
- 1887년 : 저임금 중국인 노동자 대량유입, 임금경쟁초래, 백호주의시작
- 1890년 : 국방, 무역, 교통, 체신 등 통합운용 필요성 대두, 연방제 운동시작
- 1891년 : 연방헌법 초안 작성, 각 지역 논의 거쳐 영국의회 제출
- 1901년 : 연방정부 및 연방의회 설치
- 1927년 : 캐버라로 연방수도 이전
- 1973년 : 백호주의 정책 폐지

## □ 정부구조 : 연방정부(FEDERATION)

- 권력구조 : 입헌군주제(국왕은 영국 국왕이 겸임, 연방총독이 대리)
- 권한
  - 국방, 외교, 무역, 금융, 체신, 통신, 이민 및 세관 등, 준주에 대한 법률 제정권
  - 연방헌법에 열거된 권한만 보유  
(단, 연방법과 주법이 충돌하는 경우 연방법이 우선)
- 구성
  - 입법부 : 하원 150명(인구비례), 상원 76명(주별 12명, 주주별 2명)
  - 행정부 : 수상이 행정부의 수반이며, 관례적으로 하원 다수당에서 산출
  - 사법부 : 입법·행정부견제 및 독립(연방대법원, 연방법원, 가정법원으로 구성)

## □ 주와 준주

- 6개 주 : New South Wales(시드니), Queensland(브리즈배인), Tasmania(호벳), South australia(애들레이드), Victoria(멜버른), Western australia(퍼스)
- 2개 준주 : Northern territory(다윈), Canberra(캔버라)

○ 권한

- 헌법 51조에 의한 연방정부 권한 이외의 사항
- 경찰, 병원, 교육, 도로, 철도, 산림, 소방, 앰블런스, 야생동물보호 등
- 주에서 영국 국왕의 권한은 주 총독이 행사함

○ 구성

- 입법부 : 개별적 헌법보유, 양원제(단 퀸즐랜드 및 2개 준주는 하원만 존재)
  - 행정부 : 다수당 대표가 주 수상이 됨, 다수당에서 모든 장관직 차지  
장관을 보좌하는 차관이 각부처 실무담당, 지방정부 소관기관
  - 사법부 : 주 최고법원, 주 중급법원, 즉결재판법원, 소액청구법원
- ※ 주정부에 설치된 주요 지방정부관련 위원회 : 보조금위원, 경계위원회

## □ 지방정부

○ 명 칭 : City, Shire, Town, Municipality 등

○ 태 동 : 애들레이드(1840년), 시드니(1842년), 멜번(1842년)

※ 초기 지방정부의 기능은 도로의 유지보수, 쓰레기 처리가 주임무

○ 법적근거 : 연방 헌법에는 지방정부에 대한 규정이 없음, 각 주 헌법의  
지방정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 주가 지방 정부  
법을 제정하여 운용

○ 권 한 : 청소, 오락시설관리(골프장, 스포츠센터, 공연장 등)  
건강, 육아, 노인복지시설, 건물(조사, 허가) 도서관운영,  
개발계획 등 입법, 행정 기능만 있고 사법기능은 없음

○ 구성(시드니의 예)

- 시의회 형태 : 기관통합형, 지방의사의 결정기능과 집행기능이 모두  
지방의회에 귀속
- 의원 수 : 5~15명(주, 시별로 다름)
- 선거주기 : 4년(투표의무가 있음)
- 시장은 대부분 시의원 중에서 시의회에서 선출(주민 직접선거도 가능)
- 시의원의 임무 : 지방정부업무 지도 조정, 자원의 최적배분, 정책목표  
수립 및 점검, 주민과 납세자 대변, 지역사회에 리  
더쉽과 안내역 제공

※ 시장 및 시의원 수당은 각 주 및 각시 마다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음

## □ 호주 개요

공식명칭은 Commonwealth of Australia 이며 6개 주와 2개의 자치령으로 구성된 연방 국가이다.

오스트레일리아는 남북으로 3,180km, 동서로는 4,000km로 지구상 가장 작은 대륙이자 6번째로 큰 나라이다. 호주 대륙은 오랫동안 다른 대륙과 분리되어 있어 여타 대륙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동, 식물군을 볼 수 있으며 오염되지 않은 나라로서 캥거루, 코알라, 개미핥기 등 많은 동물이 살고 있어 동물과 자연, 인간이 함께 삶을 영위한다고도 말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호주가 특이한 점은 적도 아래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어 우리와 기후가 반대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덕분에 우리의 겨울엔 여름여행이, 여름엔 겨울여행이 가능해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지하자원이 풍부하여 광물, 금속 생산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보크사이트, 갈탄, 석탄, 광물질 모래, 금, 납, 아연, 철, 구리, 니켈 등이 있다.

세계 제2의 철광석 수출국으로 연간 약 1억톤의 철광석을 생산하여 각구에 수출하고 있다. 또한 호주는 자체적으로 전력개발 기반을 가지고 있어 전기는 주로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으나 천연가스를 이용한 전기 생산도 하고 있다.

## □ 호주 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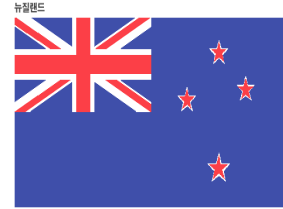
호주의 면적은 약 769만 km<sup>2</sup>로 한반도의 약 35배이며, 총면적의 90% 이상이 사막이나 고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도시들은 해변가의 수목지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평균고도는 300m이다.

## □ 한국과 호주의 차이점

- 한국과는 반대로 호주는 북향집이 햇볕이 잘들어 선호함
- 한국은 운동장을 왼쪽을 끼고 돌지만 호주 사람들은 오른쪽을 끼고 돈다.
- 도로의 주행 방향이 왼쪽 차선이다. 그리고 핸들 방향도 한국과는 반대다.
- 전기 스위치는 한국에서는 올려야 켜지지만 호주는 내려야만 켜진다

## □ 뉴질랜드 국가안내

- 국 명 : 뉴질랜드(New Zealand)
- 수 도 : 웰링톤(Wellington)
- 면 적 : 약 26만km<sup>2</sup> [한반도의 1.212배](#)
- 인 구 : 약 443만명 [세계 125위](#)
- 지방정부 수 : 86개(광역정부 12, 통합정부 5, 지역정부 69)
- 주요도시 : 오클랜드, 크라이스트처치, 로토루아
- 언 어 : 영어와 마오리어
- 종 교 : 성공회(17%), 카톨릭(14%), 개신교(11%)
- 주요민족 : 유럽인 68%, 마오리족14%,아시아계 9.2%, 폴리네시아인 6.9%
- 시 차 : 한국보다 4시간이 빠르다.
- 통 화 : 뉴질랜드 달러는 보통 NZD라고 표기하며  
동전에는 5,10,20,50 ¢, \$1, \$2짜리가 있으며,  
지폐는 \$5, \$10, \$20, \$50, \$100짜리가 있다.



## □ 역사

- 1642년: 네덜란드 탐험가 아벨 얀스준 타즈먼 뉴질랜드 도착
- 1768년: 영국 제임스 쿡 선장 탐험
- 1840.2.6: 와이탕기 조약(영국과 마오리족 사이의 조약)  
뉴질랜드 주권을 영국에 이양, 마오리인의 토지 소유인정, 마오리인을 영국 국민으로 인정
- 1840년: 유럽이주민 증가
- 1860~1870년: 뉴질랜드 토지전쟁으로 귀결
- 1850년~19세기말: 거의 완전한 자치가 이루어짐
- 1893년: 세계 최초로 여성에 참정권 부여
- 1947년: 완전한 독립국가로 발전



## □ 중앙정부

- 권력구조 : 입헌군주제(영국여왕 국왕 겸임, 연방총독이 대리)
- 국 회 : 단원제, 의석수(120석), 임기(3년), 현집권당(노동당)
- 내 각
  - 지방정부관련 중앙부처 : 내무부
  - 최고 정책결정 기구 : 수상이 이끌며 수상은 전통적으로 집권당 또는 연립정부의 지도자가 수상이 됨
  - 법원 : 뉴질랜드 대법원, 고등법원, 기타 하위법원

## □ 지방정부

- 지방정부의 사무
  - 광역정부 : 복지, 하천관리, 홍수통제, 오염관리, 광역적 육상수송계획 등
  - 지방정부 : 복지, 상하수도, 도로등 인프라 공급, 보건, 민방위, 건축허가 등
  - 통합지역정부 : 광역정부 기능과 지역정부 기능 동시에 수행
  - 시장(의장) : 지역정부 및 통합지역정부 수장, 주민직선 불신임 될 수 없음(시장)
  - 광역정부 수장 : 의원중 선출, 불신임 가능(의장)
  - 선거 : 매 3년 10월 두 번째 토요일 실시

## □ 뉴질랜드 개요

뉴질랜드의 전체 인구는 약 380만명으로 그 대부분은 영국계 백인이며, 원주민인 마오리족은 약 1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일상 용어는 영어(뉴질랜드영어, kiwi English)를 사용하며 마오리어가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종교는 성공회가 24.3%이다. 뉴질랜드는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으며 현재는 복지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단계이나 아직도 세계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 뉴질랜드 지리

뉴질랜드의 면적은 27만 평방 킬로미터로 우리나라의 약 1.2배에 이르며, 남위 34도~47도 사이에 위치해 있고 길이는 약 1600Km이다. 쿡해협(Cook Strait)을 사이에 두고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호주와는 태즈먼해(Tasman Sea)를 사이에 두고 약 2,250km 떨어져 있다.

## □ 뉴질랜드 기후

우리나라의 기후와는 정반대의 기후로 남반구의 온대에 위치한 뉴질랜드는 해양성 기후로 한서의 차가 심하지 않다. 날씨가 자주 바뀌기는 하나 전국에 걸쳐 일조량과 강우량이 충분하다. 여름에는 아열대성 기후가 되고 겨울에는 남섬의 남부 알프스에 눈이 많이 내린다. 1년중 가장 무더운 때는 1-2월이며 가장 추운 때는 7-8월이다. 7-9월까지는 우리로서 1년중 가장 많은 비가 내리나 폭우가 오는 경우는 드물어 여행에 큰 무리는 없다. 오클랜드를 기준으로 여름철 최고 기온은 약 25℃, 최저 기온은 5℃정도이다.

뉴질랜드는 1일 사계절이 나타난다고 할만큼 기온의 차가 심하다. 따라서 한 여름이라도 여행하려면 점프나 긴바지가 필수이다. 북섬은 화산으로 이루어져 있어 남섬보다 조금 더 따뜻하며, 남섬은 남극에 가까워 북섬보다 좀 더 추운 날씨이다.

## 7

## 기관공식방문 및 연수 내용

## □ 한국관광공사 시드니지사 방문 개요

구분	내용
일시	2017. 3. 6(월) 14:00 ~ 15:20
연수 내용	호주관광시장 현황, 우리시 관광 활성화 협조방안
면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태 환(한국관광공사 시드니지사장)</li> <li>▪ 정지만(한국관광공사 시드니지사 차장)</li> </ul>
방문 사진	

## □ 연수내용

## ○ 호주 일반현황

- 국가 일반현황은 769만km<sup>2</sup>(한반도의 약 35배)정도 이며, 인구는 2,400만으로 한국의 1/2정도,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이며, 1인당 GDP \$55,160로 한국보다 2배 정도 많은 나라임

- 한국과의 관계는 '65년 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92년 항공협정, '04년 자원협력 협정, '14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한-호주 FTA로 인해 '16년 교역규모는 미화로 285.1억 달러에 달하며, 한국의 10위권 무역상대국가임.

○ 호주관광시장 현황

- 호주 출입국 통계

(단위 : 명)

년도별	출국자수	증감율	입국자수	증감율(%)
2011	7,795,100	9.61	5,875,300	-0.16
2012	8,219,800	5.16	6,145,500	4.36
2013	8,768,000	6.67	6,380,500	3.82
2014	9,114,000	3.95	6,868,000	7.64
2015	9,459,200	3.64	7,444,400	7.74
2016	9,928,100	4.72	8,262,900	9.90

- 주요 출국목적지 : 1위 뉴질랜드(124만명), 2위 인도네시아(112만명), 3위 미국(98만명)

○ 한국-호주 관광교류 통계

(단위 : 명)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비고
호주⇒한국 (성장률 %)	122,494 (9.0)	128,812 (5.2)	123,560 (-4.1)	141,208 (14.3)	133,266 (-5.6)	151,979 (14.0)	
한국⇒호주 (성장률 %)	198,000 (-7.5)	196,800 (-0.6)	193,000 (-2.0)	204,100 (3.3)	230,000 (11.2)	284,600 (19.1)	

- 방한객 평균지출 1,066.9달러(2014년 외래관광객 평균 1,605.5달러)

○ 항공편 : 한국 - 호주 주 20회 4,802석, 한국 - 뉴질랜드 주 7회 1,575석

○ 한국관광상품 취급현황 : 약 20개 여행사에서 한국관광상품 취급

- FIT(개별 관광객) : 90%, 패키지 관광객 : 10%로 FIT위주의 시장임



- 패키지 20개사 역점을 두는 이유는 샘플 관광상품이 잘되면, 샘플 관광모델을 활용 온라인 등을 통해 FIT(개별관광객)에게 홍보

#### ○ 호주 아웃바운드 관광시장

- 경제둔화 및 호주화 약세에도 성장세 지속 '16년 출국자수 990만명으로 전년비 4.7%증가, 2000년대 중반부터 가파르게 성장, 2017년에도 3.5 ~ 4% 증가 예상

#### ○ 아시아 경쟁국 동향

- 2016년 기준 호주인 아시아 방문국가 순위는 인도네시아(112만명), 태국(55만명), 중국(43만명), 싱가포르(36만명), 일본(30만명), 인도(28만명) 등의 순으로 나타나며, 한국은 15만명 수준으로 10위 정도에 해당함
- 방일 호주관광객은 전년대비 22.6% 증가하였고, 중국은 7.2% 증가하였음

#### ○ 방한 관광 동향

- 2016년 방한 호주 관광객 15만2천명으로 사상최초 15만명 돌파, 크루즈 입항 및 항공사 프로모션, 스톱오버 활성화 등으로 방한객 증가 추세
- 유럽 태러 영향으로 영국, 미국 등 장거리 여행보다 상대적으로 근접한 아시아권 증가 예상, 한류, 한식 관심증가 및 여행 다변화 추세로 지속적으로 증가할것으로 전망되며, 2020년대 20만명 예상함

#### ○ 호주관광객 유치에 위한 관광공사의 주요사업

- 현지 유력 TV 방한 특별 프로그램 제작 방영,
- FIT 확대를 위한 항공-여행사 연계 캠페인,
- 관광박람회 참여 소비자 프로모션,
- SIT(특정분야 관심 소비자층) 대상 방한 유치를 위한 마케팅,
- MICE산업, 국제회의 인센티브 관광 등 대형단체 방한 추진(현재는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등지로 방문 또는 행사개최를 하나, 일본과 연계를 통한 유치 추진)

- 한국관광 브랜드 제고를 위한 호주현지 온·오프라인 광고
- 한국관광상품 개발 : 한·일 연계상품, 한·중 연계상품, 한국 단독상품 등

## □ 질의 응답

Q : 호주 출입국 통계에 입국자 수에 교민이 포함 되는지?

- 교민은 호주 국적자이므로 포함되지 않고,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들어온 한국인도 제외됨

참고로, 한국은 20여개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맺었는데 호주가 가장 활발하며, 매년 3만명 정도의 한국 젊은이들이 참여할 정도로 호주가 가장 활발함

Q : 지자체 단위에서 호주관광객 유치에 위한 프로모션이라든지 행사를 한 것이 있는지?

- 관광공사 해외지사가 30여 개국에 있음, 따라서 지자체 단위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프로모션이나 행사를 할 경우 관광공사에서 적극 협력할 것임. 예를 들어 특정지역 방문의 해, 체육대회 등을 할 경우 브로셔 배부 및 설명회 등을 개최해 적극 협조를 할 것이니 지사를 활용하기 바람
- 참고로 말하면 동남아, 중국, 일본 보다는 구미주 쪽이 프로모션이 힘듦, 동남아 등지는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고, 근거리이므로 많은 여행업자들이 찾아오고, 프로모션 제안도 들어와 적절히 조정하면서 관광객을 끌어 들이는 역할을 하는데, 구미주 쪽은 아무래도 거리가 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 프로모션도 잘 먹혀들지않는 측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음

Q :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교했을 때 위치 등 모든면이 비슷한데 비해 물가 등이 낮아 여행경비 절약 등 잇점이 있을 텐데도 일본에 2배이상 더 많이 가는이유는?

- 기본적으로 서양사회에서 일본을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과 다르다. 일본은 서양에 거의다 알려져 있는데 비해 한국은 아직

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 인지도가 다르다. 그리고 일본문화에 대해서는 호감을 갖고 있고, 과학기술 측면, 문화적 측면에서 서양사회에서 인정하는 측면이 많이 있다. 프랑스의 경우도 일본문화원이 파리 시내에 엄청난 규모로 자리잡고 있고, 협정에 의해 일본에서도 프랑스 문화원 부지를 엄청나게 제공해 주었음, 또 일본은 이미 우리보다 선진국이고 서양사회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임

Q : 20여개 여행사에서 한국관광상품 취급이라고 했는데, 관광상품이 여행 경로 등 이런것인지 아니면 제품화된 패키지여행 형태인지?

- 제품화된 패키지여행상품이며, 이런상품을 만들 때 관광공사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상품을 만들고 광고비의 일정부분을 일정기간 지원해준 다든지, 한국에 왔을 때 만찬등을 제공하는 지원을 해주고 있음
- 관광공사의 주요임무가 해외 관광객을 국내로 끌어들이고 국내 내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므로 해외관광객 유치에 위해 노력함

Q : 한국에 대한 관광상품을 소개해 준다는 것인지 아니면 호주에 왔을 때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 호주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올수 있도록 그상품을 지원해주고, 그상품으로 한국에 올수있도록 서포터 해주는 것임

Q : 가격이 더 저렴하게 한국을 여행할수 있도록 돈을 지원해 준다는 것인지?

- 가격이 더 저렴하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가격에 통용되도록 하되 그 상품이 더 잘팔리도록 서포터 한다는 것임

Q : 일본의 경우 특정지역만 관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방 관광도 활성화 되어 있음 예를 들어 도쿄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오사카, 후쿠오카, 오키나와 등 전체적으로 활성화 되어 있는데, 우리는 서울, 서울과 경기도 일원, 제주도 등 특정 지역 관광만 활성화 되어 있는데, 특정 이벤트

연계 지역 관광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방관광 활성화 시책이 있는지?

-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관광객이 서울 제주에 집중되는 문제가 있음 지방관광 활성화가 중요한 문제인데, 관광공사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런차원에서 국내지사도 8개소를 만들어 노력하고 있음
- 대구만해도 250만이 살고있지만 해외에 전혀 알려져 있지 않고,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인프라도 부족한 이야기를 들었으나, 유럽등 해외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것이 제1의 목적은 아니고, 국내관광 활성화가 목적이며, 이를통해 해외관광객이 유치가 되는 것이다. 또 관광인프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관광인프라이고, 이모든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하는 것이 관광인프라 개선이므로 조금씩 바뀌어나가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것으로 생각됨.
-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관광객이 서울 제주에 집중되는 문제가 있음 지방관광 활성화가 중요한 문제인데, 관광공사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런차원에서 국내지사도 8개소를 만들어 노력하고 있음

Q : 일본의 관광홍보를 보면 총리가 직접 출연하여 일본으로 오라고 하고, 광고마다 일본의 각 지역 다양한 명소를 해외에 소개하며 일본전역에 해외관광객이 올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해외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고 있고 이런 영향으로 해외관광객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벤치마킹한 대만의 경우도 각 지역의 다양한 지역축제를 효과적으로 홍보하여 해외 관광객이 대만 다양한 지역을 여행하도록 하였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것 같은데?

- 정책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관광은 가장 융복합적인 측면이 강함. 관광은 관련되지 않은 분야가 잘 없음. 관광산업 자체만 통계를 구하는 것은 서양사회에서도 힘든 부분임. 모든 부분이 융복합되어 있으므로 우리나라 모든 부처가 관련이 되어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관광산업 정책을 책임지는데는 문화체육관광부인데, 다른 부서와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음. 통합적인 정책 매커니즘이 작동하지 않고 있음. 관광에 대한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없음. 이것이 우리

나라와 일본과의 차이점임. 일본의 경우 관광산업이 총리실 주재 회의 등을 하여 정책을 결정 시행하므로 이런부분이 우리보다 더 낫은 부분이며 배워야 할 부분임.

Q : 예산부서이다 보니 예산과 관련해서 보면, 2016년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맞아 2배정도 관광객이 늘었음. 이는 대구에 머물면 인센티브를 줄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노력을 하였음에 기인한다고 생각하며, 금년에는 중국 창사, 일본 교토, 우리 대구시가 동아시아 문화도시 행사를 개최하며, 7월말 치맥축제 등을 개최 하는 데, 대구시와 관광공사가 많은 협조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함.

## □ 시사점

○ 해외 관광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대구가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관광상품이 될수 있으므로, 대구가 갖고있는 다른나라와 다르게 보여지는 여러부분을 관광자원화 하는 것이 필요하며, 관광공사와 많은 협력과 노력을 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에 적극 협력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 더 클라우드 방문

구분	내용
일시	2017. 3. 10(금) 14:00 ~ 15:30
연수 내용	컨벤션 센터인 더 클라우드 운영관련 연수
면담자	▪ 캐시 챔버스(선임)

방문  
사진



## □ 연수 내용

- 호주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공사의 주요사업
  - 2011 럭비 월드컵이 뉴질랜드에서 열리어 뉴질랜드 국가대표팀인 올블랙스가 결승전 우승을 기념하여 거대한 파티장이자 경기관람용으로 사용되었음
  - 거의 180m 길이에 6,000 명까지 수용 할 수 있음.
  - 건물의 지상 층은 4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져있어 동시에 진행되는 다양한 쇼케이스 및 축제 행사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용객의 요구에 따라 내부 이용면적을 확대 또는 축소 할 수 있음

## □ 질의 응답

Q : 더 클라우드를 언제쯤 지어서 시작 했는지?

- 2011년에 건물을 지었음
- 이것은 2011년 세계 럭비대회에서 뉴질랜드가 참석을 하는데, 그곳에서 뉴질랜드가 우승을 했음. 이를 기념하기위해서 지었으며, 이구조는 영구적인게 아니라 일시적인 건물임. 디자인을 할 때 희고 긴 구름을 모티브로 하였으며, 마운트 이즈에 있는 럭비구장과 같은 구조로 지었으며, 재료는 철거하여 재활용가능한 구조로 지어졌음

Q : 활용 용도는 ?

-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며, 컨퍼런스 용도로도, 복싱경기장으로도 활용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함.
- 전시회를 많이 개최함, 셰프들의 경연장으로도 활용하며, 올 연말에는 초콜렛, 커피 회사들이 참여하는 행사도 개최 예정임

Q : 건축 구조는 ?

- 기본적으로 30개의 빔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중간에는 기둥이 없는 완전히 오픈된 구조임. 폭은 20m, 길이 180m 임. 건물안에는 화장실을 3개 설치했으며, 건물안에는 난방 장치가 없음. 2011년 럭비 월드컵 우승시 축제를 하였는데, 이 건물 안에 한꺼번에 7,000명의 사람이 있으면 숨을 잘 못쉬기 때문에 위를 오픈하여 환기가 되도록 하였음,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있더라도 호흡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음. 또 바닥은 아스팔트로 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자전거타기 연습등을 할수 있음

Q : 이러한 큰 건물을 가설 건축물로 지을 생각은 어떻게 하게되었는지?

- 처음 구상은 정부에서 소유한 땅이었기 때문이며, 럭비월드컵 우승을 기념해서 짓게 되었음

Q : 운영주체는 것인지?

- 오클랜드 시에는 7개의 시설을 운영하는 회사가 있음 이중 파누코라는 회사에서 정부 지분의 50%를 매입하여, 정부와 시가 공동으로 소유권을 갖고 있음. 주된 수입원은 컨벤션이나 행사 대관수입이며, 하루 대관료는 6천불임

Q : 연간 전시일수가 어느정도 되는 지 그리고 운영수지는 어떻게 되는 지?

- 경영수지는 비밀이므로 이야기 할수 없으며, 다만 연간 75 ~80% 대관이 이루어 짐. 이는 파누코 재단에서 직접 관리 하므로 중간에 커미션을 줄 필요가 없고, 수익이 괜찮음

Q : 지분이 정부와 시가 50대 50인데, 운영비 부담은 어떻게 하는지?

- 운영비는 오클랜드시 산하 파누코 그룹에서 전적으로 부담하고, 수익도 갖고 감. 단 정부는 행사 대관시 최우선권을 갖게됨.
- 해석의 혼선이 있었는데, 파누아 그룹은 시티카운슬(시정부)의 특별 부서이며, 파누코 그룹이 담당하는 것이 오클랜드 도시철도, 크루즈관리, 컨벤션 임

Q : 파누코 그룹에 종사하는 인력은 얼마나 되는지?

- 파누코 그룹은 부동산, 철도, 크루즈, 컨벤션 등의 분야에 약180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으며, 과거는 부두쪽만 관리하다 최근에는 오클랜드 시내에 있는 건물도 일부 관리하고 있음. 대구시의 시설관리공단과 비슷함.

## □ 시사점

○ 시정부 산하 기관이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운영비 및 건축비가 가급적 들지 않는 방향으로 시설물을 건축하고 운영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으며, 우리시도 각종 사업을 할 때 비용을 고려하여 계획을 하는 것이 실용적일 것 같다고 생각됨



## □ 호주 국회의사당 방문

구분	내용
일시	2017. 3. 4(토)
연수 내용	의원내각제를 시행 중인 호주의 의회 관람 및 의회 시스템 학습
방문 사진	
	
	
	

## □ 연수내용

- 호주의 국회(Parliament of Australia)는 캄먼웰스국회(Commonwealth Parliament) 또는 연방국회(Federal Parliament)로 알려져 있으며 호주 정부의 입법기관 이다.
- 국회는 여왕(영국), 상원, 그리고 하원으로 구성 되며, 거의 언제나 총독 (Governor-General)이 여왕을 대신한다.

- 총독은 집권당에서 선출된 수상(Prime Minister, 현재 Kevin Rudd)이 지명하여 여왕의 재가를 받는다.
- 호주의 국회는 하원(Lower House, The House of Representatives)과 상원(The Senate)이 있는 양원제 이다.
- 하원에는 현재 선거구(electoral divisions, electorates, seats)를 대표하는 150명(2001년 선거 이후)의 하원의원이 있다.
- 상원(upper house)은 76명의 상원의원이 있는데 6개 주(state)에서 각각 12명 씩, 호주 대륙 내의 2개의 준주(territory)에서 2명 씩 선출한다.

## □ 시사점

- 호주의 국회는 상하 양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국민위에 군림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아래에서 있는 국회라는 느낌을 받았으며, 국회 옥상에는 잔디가 덮혀있었으며, 이는 국민이 국회의원 위에 존재하고, 국회의원은 국민을 섬긴다는 뜻으로 이러한 건축 설계를 국회의원들이 용인했다는 부분에서 우리나라와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음

## □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방문

구분	내 용
일시	2017. 3. 6(월)
연수 내용	오페라 하우스 내부 관람 및 운영 시스템 연수
방문 사진	

## □ 연수내용

- 오페라 하우스는 시드니의 상징이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중에 하나다. 1940년대 말, 오페라와 콘서트를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의 필요성을 절감한 시드니 시민들은 주 정부에 극장 설립을 의뢰했다. 뉴사우스웨일즈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1957년 국립 오페라 하우스 설계를 공모했다. 이 공모전에는 전 세계 32개국에서 232점의 작품이 응모했는데, 그중 덴마크 건축가 욘 우촌의 설계가 최종 선발되었다.
- 바람이 가득 찬 돛대의 모양을 형상화한 오페라 하우스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막대한 건축비 지출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에서는 복권을 발행하기도 했다. 착공한 지 14년 만에 완공된 오페라 하우스는 1973년 개관한 이래, 세

계에서 공연이 가장 많이 열리는 예술 센터로 자리 잡았다. 또한 국가의 주요 행사가 진행되는 곳으로 오스트레일리아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화적 공간이기도 하다. 토 · 일요일에는 비 오는 날을 제외하고 오전 8시부터 저녁까지 벼룩시장이 열린다.

- 오페라 하우스는 한 해에 3000회가 넘는 공연을 진행하는 공연장이다. 오페라 전용 극장에서 오페라를 보는 것은 특별한 일이라기보다 공연장인 오페라 하우스를 즐기는 한 방법으로 인식해야 한다.
- 오페라를 본다는 점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언어다. 그러나 음악을 통해 그때의 분위기나 상황을 이해할 수 있고, 무대 위의 작은 전광판에 영어로 가사가 전해지니 겁먹지 말고 도전해 보자. 미리 여행 기간에 오페라 하우스에서 볼 수 있는 공연을 체크해 공연의 줄거리를 알고 간다면, 더욱 쉽고 재미있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티켓 구입이나 예약은 박스 오피스나 홈페이지, 전화로 가능하며, 공연 당일 티켓 수령은 공연 시작 1시간 전까지 메인 박스오피스에서 한다. 리허설 공연은 30% 저렴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두자.
- 공연장 좌석수는 1547석의 오페라 극장과 2679석의 음악당을 비롯해 여러 개의 극장, 전시관, 도서관 등이 있다.

## □ 시사점

- 운영과 관련하여 확인한 결과 종사자수는 정규직 400명 정도이며, 공연장의 각종수익으로 전체 운영비의 80%를 충당하고, 20%만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다고 하였음, 공연장으로 직접 공연을 통한 수입과 대관 등 기본적인 수익 창출 뿐만아니라 임대료, 각종투어프로그램 운영, 후원기업 유치, 기념품 샵 운영 등 수많은 수익 창출 노력으로 또 한해 3,000여회의 공연을 하고(오케스트라 연 300회), 클래식 전용관을 다양한 목적으로 대관(유치원 발표회, 졸업식, 무도회, 전시회)하여 수익을 창출하면서 한편으로는 자국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 주기 위해 차등 대관료(유치원, 학교 졸업식 등은 저렴하게, 유명 아티스트는 비싸게)를 받는 등우리 콘서트하우스(대구시민회관)과 다르게 수익 위주로 운영하는 부분이 부러웠음

## □ 브리즈번 사우스뱅크 방문

구분	내용
일시	2017. 3. 7(화)
연수 내용	인공해변으로 도심 공원 녹지시설 우수사례 현장 견학
방문 사진	

## □ 연수내용

- 1988년 국제 엑스포 행사장을 재구성해 조성한곳으로, 특히 인공 해변이 인상적이다. 시티 보타닉 가든과 함께 관광객과 현지인 모두를 위한 휴식처로, 언제나 많은 사람으로 붐빈다. 이곳에는 나비와 곤충 테마공원, 산책로, 자전거 전용 도로, 레스토랑, 바비큐 시설, 꽃으로 장식된 아치, 아이맥스 극장, 시네마 극장, 바비큐 · 피크닉 시설을 갖추고 있다. 시내에서 빅토리아 브리지를 건너거나, 보타닉 가든 쪽에서 굿윌 보행자 전용 브리지(The Goodwill Pedestrian Cycle Bridge)를 건너면 쉽게 찾을 수 있다.



- 사우스뱅크 지역은 크게 퀸즐랜드 문화 센터, 사우스뱅크 파크랜드, 해양 박물관으로 나눌 수 있다.
- 퀸즐랜드 문화 센터는 넓은 부지에 미술관과 박물관, 콘서트 홀, 극장, 주립 도서관 등이 모여 있는 곳이다. 문화와 미술에 관심이 지대한 사람에게는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곳으로, 훌륭한 미술 작품과 공연에 대해 미리 공부하고 간다면 더욱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다.
- 사우스뱅크 파크랜드는 인공 해수욕장과 바비큐 시설, 주말 마켓까지 즐길거리가 다양해, 여유 있는 오스트레일리아 문화를 느끼며 하루를 보내기에 충분한 곳이다. 미술관을 둘러보고 사우스뱅크 파크랜드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최상의 코스지만 미술에 전혀 흥미가 없는 사람은 사우스뱅크 파크랜드만 둘러도 좋다.

## □ 시사점

- 도심에 실제 바다의 모래와 야자수 등을 조성해 마치 바다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주며,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점이 인상 깊었으며, 안전 요원도 대기하고 있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시정부에서 배려한 부분이 훌륭하다고 생각했다. 처음 공원을 조성할 때 미리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을 배치한 점 등이 인상 깊었고, 이 공원을 보면서 신천변 여름 물놀이장이 생각났고, 서로 너무 대비가 되었으며, 우리시는 브리즈 베인보다 규모는 크지만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에 있어서는 여전히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었다. .



-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방문 공원내 태양 쓰레기통을 활용 캔 압축등 재활용품 분리 수거를 하고 있음



- 전쟁박물관 : 국회의사당 바로 맞은편에 있는 박물관으로 호주가 참전한 전쟁을 시대순으로 전시해 두었으며, 한국전쟁 참전관도 있음



- 바이센테니얼공원(Bicentennial Park) : 시드니 올림픽 파크내 에 조성 된 공원으로 시드니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고 있는 공원으로 넓고 잘 정비가 되어 있었음



- 시드니 시청 : 시드니 중심부에 위치한 건물로 공식명칭은 시드니 타운홀로 시민을 위한 것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건물이다





- 시드니 시청 앞 트램 설치 공사장 앞 : 시드니 시에도 지하철이 있지만 현재 시청앞을 지나는 지상전철 트램 설치 공사 중이었음



- 골드코스트 : 남북으로 약 60 km 뻗어있으며, 퀸즐랜드 주의 주도인 브리즈번에서 남쪽으로 약 78km에 위치, 네랑 강이 흐르고 있어 해안에서 내륙에 걸쳐 습지가 펼쳐져 있었지만 현재는 정비되어, 수로를 따라 주택이 세워져있음



- 브리스베인 시청 앞 : 광장이 있으며, 시의 가장 변화한 곳에 시청이 있었음.





- 아그로돔 : 양털깎기 쇼와 양몰이 쇼를 보여주는 곳으로 실시간으로 방문객들에게 동시통역을 제공하여, 관광객들에서 언어소통에 대한 장애를 해소하여 주었으며, 이런 노력이 별것아닌 양털깎기를 세계적인 관광쇼로 만들게 된 원동력이라 생각하였음.



- 로토루아 시의회 로토루아는 뉴질랜드, 북섬에 있는 도시로, 면적은 2,614.9 km<sup>2</sup>이며, 인구는 68천 여명, 화산과 지열 발전이 발달되었고, 마오리족 문화의 중심지로 뉴질랜드 최대의 관광업 중심지임

- ☐ (붙임1)공무국외여행 계획서
- ☐ (붙임2)항공권(보딩패스)
- ☐ (붙임3)호텔 등 숙박비 Invoic